

발 간 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생산한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수집·보존할 뿐 아니라 공개·활용 등을 담당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록을 공개·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큰 기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경제 편을 시작으로 산업, 복지, 교통, 교육 등 국가 중요 정책을 주제별로 발간했습니다.

내년 2020년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제노동자였던 청년 전태일이 ‘노동권’을 외치며 분신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기록원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전태일 사망 50주년을 맞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소장하고 있는 의미있는 기록들이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함께 발간했습니다.

올해 발간하는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노동)』은 1권 해제편, 2권 자료편으로 두 권을 발간했습니다. 우선 소장 기록물 중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87년 사이 생산된 기록을 대상으로 사료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기록을 선별했습니다. 국가의 노동정책을 보여주는 기록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적용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대응을 보여주는 기록을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선별 과정을 거쳐 1권 해제편에서는 기록물 내용 뿐 아니라 기록이 갖는 시대적·정치적 배경과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록 한 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으나 두 건 이상을 집합적으로 묶어 시대적 상황과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풍부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묶어 설명했습니다. 2권 자료편에서는 해제 대상 기록 중 사료적 가치와 희소성 있는 기록을 엄선해 텍스트가 아닌 기록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록물 원문을 실었습니다. 기록이 기록으로 역사와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사료로서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문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많은 기록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노동운동사의 드러나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원은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시리즈를 통해 서고에 잠자고 있던 중요 기록을 찾아 심도있는 해제와 자료 제공 등으로 학술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애써주신 집필자와 공개서비스과 전시·편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이 소연